



언어의 이해

18차시. 사라져 가는 방언

2024. 11. 19. 화.

명정희

차례

◆방언, 사라져 가는 한국어

1. 방언의 개념과 유형
2. 방언과 표준어
3. 방언 찾기

1. 방언의 개념과 유형

☐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 제1장 총칙

☒ ☐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방언의 개념과 유형

표준어 정의

작성자 서정희 | 등록일 2023. 6. 8. | 조회수 121

표준어 정의가 불편합니다

표준어란 한 나라의 표준으로 정한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정합니다.
지방사람들은 교양이 없다고 받아들여집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1. 방언의 개념과 유형

... [답변]표준어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 답변일 2023. 6. 9.

안녕하십니까?

표준어를 설정하는 원칙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신 듯합니다. 표준어 사정 원칙 제1항에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말들 중 어떠한 것을 표준어로 삼을지에 대해 정할 때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밝힌 것일 뿐입니다. 즉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라는 사회적 기준과 '현대의 언어'라는 시대적 기준, '서울말'이라는 지역적 기준이 적용되는 것임을 밝힌 것일 뿐이라 하겠으며, 각각의 기준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 사람들이라 하여 교양이 없다는 식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언을 어떤 표준적인 언어형식에서 이탈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언어 변종 (variety)으로 이해해서는 안 됨.

1. 방언의 개념과 유형

이것은 이름이 뭔가요?



부추

솔

정구지

1. 방언의 개념과 유형

✓ 방언(dialect)의 개념

- 언어는 지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계층, 성별, 세대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분화하여 체계적인 언어차이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방언이라 함.
곧 방언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지역적, 또는 사회적인 언어 변종으로서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 그러한 체계를 가진 지역방언 또는 사회방언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분야가 방언학(dialectology)
방언은 지역적 변이나 사회적 변이에 의해 나타나는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언어 변종.
- 언어의 하위개념으로서의 방언을 지칭. 한 언어를 형성하고 있는 하위 단위로서의 언어 체계 전반을 곧 방언이라 함. 가령 한국어를 예로 들면 한국어를 이루고 있는 각 지역의 말 하나하나를, 즉 그 지역의 언어 체계 전부를 방언이라 함.

1. 방언의 개념과 유형

✓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

① 지역 방언

: 지역의 다름으로 인해 형성된 방언. 두 지역 사이에 큰 산맥이나 강, 또는 큰 숲이나 늪 등의 지리적인 장애가 있을 때 주로 발생한다. 지리적인 거리로 인해 서로 분화를 일으킨 방언 각각을 지역 방언이라고 한다. '제주도방언, 경상도방언, 전라도방언' 등으로 도명을 붙여 부르는 방언들이 이 지역 방언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전통적으로 방언이라고 하면 지역 방언을 일컬을 만큼 방언 중 대표적인 존재에 해당한다.

② 사회 방언

: 동일한 지역 안에서도 사회계층이 다르거나, 세대의 차이, 성별의 차이 등의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여 방언이 형성될 수 있다. 사회 방언은 지역 방언만큼 일찍부터 방언학자의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다.

(이익섭 2006: 2)

1. 방언의 개념과 유형

✓ '방언'의 개념 변천

'방언'이라는 말이 '지역어'로서의 의미를 얻게 된 것은 개화기(開化期)에 들어서서이다. 그 이전, 즉 근대 이전 시기의 방언은 주로 '중국의 변방어'를 뜻하였다.

개화기 초기에는 그 의미가 약간 평준화하여 '어느 한 나라의 언어'를 가리켰으나 근대 외래 요소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역어'를 나타내는 말로 뜻이 바뀌어 쓰이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는 일제강점기 및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한국 사회에 '표준어' 개념이 강력히 대두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방언은 '표준어가 아닌 말(=사투리)' 또는 '그 지방에서만 쓰는 말'의 의미로 한정, 정착되었다.

개화기 이전 시기에 '지역어'는, 서울말(또는 '중앙어')과 대비되는 차원에서 '향언(鄉言), 방언(方語)' 등으로 불렸다. 개화기를 거치면서 이들은 '사투리'로 단일화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방언이 지역어를 뜻하게 됨에 따라, '방언'과 '사투리'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등장한 '표준어'로 인해 이들 사이에는 새로운 개념 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리하여 일부의 사람들은 방언을 '한 언어의 분화체'의 전체 체계, 그리고 사투리를 일정 지역에서 쓰는 '비표준적인 말'로 달리 정의하여 양자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방언'은 국어 공통어에 대비되는 개념(더 정확히는 국어의 하위 개념)을 가리키는 말, '사투리'는 표준어와 대비되는 개념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정승철 2013: 26-27)

2. 방언과 표준어

✓ 표준어와 방언의 차이

표준어	방언
1. 통합성 2. 성문화(규범성) 3. 고정된 변종 4. 통용성 5. 정교성 6. 정치, 사회 중심어 7. 문어, 구어 간 양자의 비중이 비슷함 8. 권위(prestige)가 있음 9. 친밀성이 작음 10. 인위적	1. 분열성 2. 비성문화(비규범성) 3. 고정되지 않은 변종 4. 비통용성 5. 비정교성 6. 지역성(특정 지역어) 7. 구어 중심, 문어 약세 8. 권위가 없음 9. 친밀성이 큼 10. 자연적

- ① **표준어**는 정치적 통합이라는 목적으로 언어의 분열을 저지하기 위해 만든 인공적인 언어이다. 그러나 **방언**은 이와 반대로 자유분방하게 분열되는 특성이 있는 민중들의 언어이다.
- ② **표준어**는 규범적인 성문화된 양식을 갖고 있다. 그에 비해 **방언**은 성문화된 양식이 없다.

2. 방언과 표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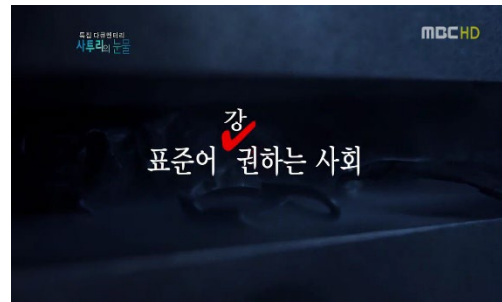
- ③ **표준어**는 고정화된 변종이지만 **방언**은 고정된 변종이 아니다.
- ④ **표준어**는 어떤 지역이나 계층을 막론하고 동일한 언어 사용권 내에서 두루 통용되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방언**은 특정 지역 또는 사회계층적이라는 통용상의 제약을 받고 있다.
- ⑤ **표준어**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은 인공적인 언어(artificial language)이다. 그러나 **방언**은 다듬지 않은, 민중들의 지역 정서와 감정이 살아 숨쉬는 언어(living language)로서, 그 정교성이라는 면에서는 표준어에 비해 뒤떨어지지만 정서적 일체감이나 유대감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표준어와 차이가 난다.
- ⑥ **표준어**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중심지역어인 것이 일반적이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치적·사회적으로 중심지인 수도 '서울' 지역어를 표준어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2. 방언과 표준어

- ⑦ **표준어**는 구어(oral language)뿐만 아니라 문어(written language)에 대해서도 성문화된 규정이 있다. 그러나 **방언**의 구어와 문어는 모두 성문화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용성이라는 면에서 방언 문어의 사용은 한정되어 있다.
- ⑧ 표준어와 방언을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은 권위(prestige)이다. **표준어**는 **방언**에 비해 의사소통상의 권위와 힘을 지니고 있다.
- ⑨ 토박이 화자에게 자기 지역의 **방언**은 그 지역의 정서와 향토적인 감각이 녹아 있어서 친근성을 주지만 **표준어**는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엄격성이 있어 방언과 차이가 난다.
- ⑩ **표준어**는 정서법과 같은 언어 정책의 구속을 받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이다. 그러나 **방언**은 그 지역의 풍토나 전통의 차이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연 언어이다.

(이상규·안귀남 2007: 26-28)

2. 방언과 표준어



[학습 활동 1]

- 사투리와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감상하고, 현대 한국 사회에서 방언이 지니는 위치를 생각해 보자. 급격하게 소멸하고 있는 방언에 대해서 각자 생각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자. (읽기 자료 1, 2 참고)
- 방언의 가치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고 정리해 보자.(읽기 자료 별도 파일 참고)

3. 방언 찾기

✓ **국립국어원 – 지역어 종합 정보**

<https://dialect.korean.go.kr/>

누리집 안내

조사 자료 검색

지역어 지도

문학 속 지역어

사진으로 보는 생활어

☰ > 어휘 조사 자료

어휘 조사 자료

+

-

전체

▼

방식

옛 한글

찾기

자세히 찾기 ⓘ

검색 가능한 표준어 어휘 목록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 조건으로 총 4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엑셀 내려받기

[학습 활동 2]

-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들어가서 5개 이상의 방언 자료를 찾아 정리하여 보자.

3. 방언 찾기

✓ 국립국어원 – 지역어 종합 정보

<https://dialect.korean.go.kr/>

국립국어원 | 지역어 종합 정보 시범운영

지역어 찾기 지역어 지도 지역어 이야기 자료 문학 속 지역어 사진으로 보는 생활어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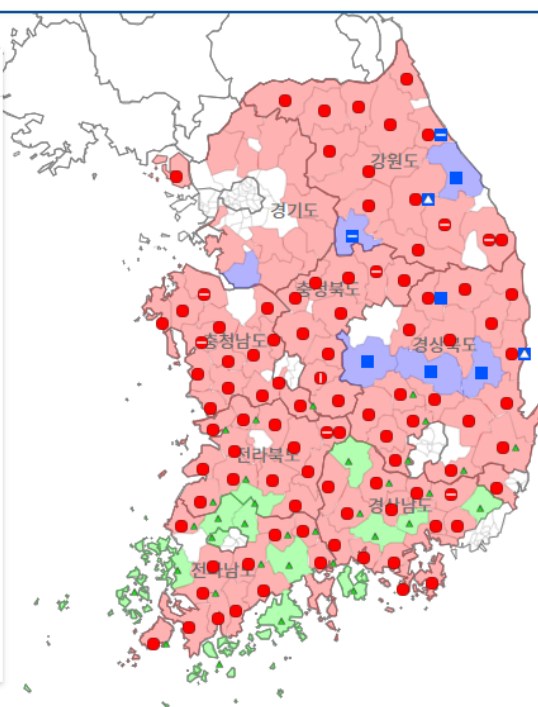
지도 검색

전체

전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 가
- 가을
- 갈치
- 감기
- 강아지
- 개미
- 건더기
- 거
- 거드랑
- 겨울
- 계집아이



가을

내려받기 해설 보기

☐ 면색 숨기기 ☐ 상징 부호 숨

- 가을
 - 가을
 - 갈
 - 가을
- 가실
 - 가실
- 가을
 - 가을
- 가을
 - 가을
 - 갈
 - 가을
- 가실
 - 가실
 - 가실
 - 가실
 - 가을

[학습 활동 3]

-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들어가서 5개 이상의 방언 자료를 찾아 관찰하여 보자.



✓ 참고 자료

- MBC 사투리의 눈물
- [한국정책방송KTV] 영웅- 사투리 사랑, 신기상 문학박사
<https://youtu.be/Z9uKBEPriFiQ>
- 571돌 한글날 행사, 전라도 사투리 대회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696>
- 안동시 사투리 경연대회
<http://v.media.daum.net/v/20171123005007084>
- "메꺼라, 맨도롱 또똔햄주"..제주말, 제주 학교서 가르친다
<http://v.media.daum.net/v/20151227185804731>



✓ 읽기 자료

[표준어와 방언에 관한 시선 1]

국가 구성원의 동질감 안 해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 필요

윤석민 (전북대 국문과 교수)

표준어 폐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방언문제이다. 표준어 선정이 불합리한 우월성의 원인이 되고 표준어 사용 권고가 자연스러운 언어의 발달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표준어 개념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를 오인한 데서 비롯한다. 표준어는 지역 공동체를 넘어 국가 공동체의 공통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표준어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표준어의 '잘못된 우월성'이 위험하다고 비난한다.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의 '서울말'에 방점을 두어 서울말이 아니면 왜 표준어가 될 수 없느냐, 서울말만 우월하냐 이의를 제기한다. 물론 방언도 우리말이며 아끼고 보존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방언이 언제나 비표준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표준어는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말이 아니라 방언을 바탕으로 한다. 어떤 방언이든 구성원이 널리 사용하면 표준어가 될 수 있다. '멍게'나 '빈대떡'도 원래 방언이었지만 지금은 표준어가 됐다.



✓ 읽기 자료

표준어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한국을 대표하는 말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한국 및 한국인 나아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세계 도처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과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한국어는 한국인의 삶과 문화 전반을 두루 알려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표준어이다.

표준어와 방언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공적 대화에서 보편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다. 무엇이 좋으냐보다 표준어와 방언이 가진 각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표준어가 자연스러운 우리말의 발전에 장애라는 주장은 표준어가 우리말의 변화를 반영해 왔음을 도외시한 주장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표준어가 기본 소통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표준어가 우리말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다.

물론 표준어가 어렵다고 느끼거나 표준어와 다른 말을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외국어, 이해할 수 없는 외계어의 사용 그리고 개인어의 오남용에 따른 우리말 파괴 현상은 구성원의 동질감을 해치고 사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표준어는 이런 혼동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 읽기 자료

[표준어와 방언에 관한 시선 2]

방송선 표준어를, 사적 자리선 방언 쓰는 게 최선인가

강희숙 (조선대 국어교육과 교수)

표준어 사정 원칙은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 처음 제시됐다. 그 뒤 표준어는 전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 또는 대중적 정보 전달과 공통 문화 형성의 도구로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권력화된 나머지 비표준어에 해당하는 방언 사용자나 다양한 집단의 제한적 의사소통 방식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표준어는 좋은 말이고 올바른 말인 데 반해 방언은 나쁜 말, 잘못된 말이라고 보는 인식은 어떤 면에서 '서울 대 지방'이라는 특이한 이분법적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방언은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전개되는 일상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소통의 도구이다. 언어생활이 결코 표준어 일색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잘 정제된 표준어의 배경하에서만 잉태되지 않았다. 또 자라는 과정에서 숱한 만남, 접촉 과정에서 정확한 표준어만을 습득해 구사하는 언어적 삶을 살아온 것도 아니다.



✓ 읽기 자료

이제는 더 이상 표준어 수호에만 연연해서는 안 된다. 해법으로 몇몇 표준어 규정의 손질이나 복수 표준어의 확대 등을 말하지만 그것만으로 미흡하다. 공적인 자리나 방송 매체 등에서는 '표준어'를, 사적인 자리에서는 '방언'을 가려 쓰는 방식도 최선은 아니다.

어떤 화자라도 표준어 구사는 서툴러도 방언으로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훌륭하게 수행해낸다면 그것으로서 충분하다. 어떠한 규범이나 인식도 그러한 언어 사용을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절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어정책의 방향은 표준어 중심의 획일적 언어정책이 아니라 일종의 다언어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이른바 글로벌 시대 또는 다문화 시대라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해 다언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수의 국민이 둘 이상의 언어에 대해 거의 동등한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보면 얼마나 클 것인가? 이러한 언어 능력은 표준어와 방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모두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지닌 국민이 바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원일 수 있음을 깨닫자. 지역 방언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이런 방향의 언어정책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